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아시안게임 금메달 65개, 2위 수성”

“日,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경기력 ↑...추격 거셀 듯”

“남북 공동 입장·단일팀 구성 합의...교류 활성화 될 듯”

“금메달 65개를 획득해 2위를 수성하겠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전총련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성조(한국체대 총장)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이재근 선수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시안게임을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각오를 다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금메달 65개를 획득해 종합 2위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 회장은 일본의 추격이 거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많은 투자

를 해서 경기력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목표한 65개의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아시안 게임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드래곤보트, 조정, 농구 등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탁구, 사격 등 국제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한다. 올해 1년은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북 공동입장 시 한반도가 ‘북

도 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남과 북은 독도 포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마찬가지로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도 독도 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우리땅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독도 포기를 요청하기로 하고 OCA에 의견서를 보냈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현지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코리아 하우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홍보와 함께 선수들의 인터뷰 장소로 활용된다.

“북측과 함께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함께 할 경우 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가 열린 10일 오전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총련(왼쪽부터)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성조 선수단장, 이재근 선수촌장.

적이 넓어야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북측과 논의의 중이다. 북측에서 육류관 평양냉면을 만들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뉴시스



프로야구 올스타전, 최다 홈런·MVP 노리는 이대호

오는 14일 울산서 개최...통산 4홈런 공동 1위

울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올스타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은 매년 한 자리에 모여 특별한 기록을 만들고 있다.

14일 열리는 올스타전은 역대 전적에서 드림 올스타(두산, 롯데, SK, 삼성, KT)가 나눔 올스타(KIA, NC, LG, 넥센, 한화)에 27승 14패로 크게 앞선다. 특히 10개 구단 체제가 시작된 2015년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로 팀 명칭이 변경된 이후부터 드림 올스타가 3년 연속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드림 올스타가 4연승을 내달릴지, 나눔 올스타가 2014년 이후 4년 만에 반격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스타전 팀 최다 연속 기록은 동군이 두 차례 기록한 5연승(1987~1991, 2004~2008)이다.

주목할 만한 선수는 드림 올스타의 이대호(롯데)다. 해의 진출 시즌(2012~2016)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올스타 베스트로 선정된 이대호는 꾸준한 올스타전 출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

이대호는 올스타전 통산 4홈런으로 롯데 김용희, 삼성 양준혁, 두산 홍성흔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라있다. 이번 올스타전에서 홈런을 터뜨린다면 단독 선두로 올라서게 된다. 또 올스타전 통산 7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대호는 KIA 이종범과 양준혁의 최다 득점(9점) 기록 경신도 가능하다.

이대호는 역대 최초로 올스타전 MVP 3회 수상에도 도전한다. KBO 올스타전에서 MVP를 2차례 차지한 선수는 이대호(2006, 2008)를 비롯해 김용희(1982, 1984), 롯데 박정태(1998, 1999), 롯데 정수근(2004,

2007, 홍성흔(2006, 2010)까지 모두 5명이다.

이대호와의 MVP 경쟁에 도전장을 내민 선수는 드림 올스타 최정(SK)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스트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게 된 최정은 2017년 올스타전에서 2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개인 첫 미스터 올스타(MVP)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다. 최정은 9일 현재 29홈런으로 홈런 1위를 달리며 본인의 한 시즌 최다 홈런에 도전하고 있다.

역대 KBO 올스타전에서 2년 연속 MVP를 차지한 선수는 1998년과 1999년 MVP에 오른 박정태가 유일하다.

베스트와 감독 추천선수를 포함해 올 시즌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48명의 선수 중 무려 19명(40%)이 첫 무대다. 새로운 얼굴이 대거 출전하는만큼 진기록 탄생 여부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스타전은 13일 올스타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14일 KBO 올스타전까지 울산 문수구장에서 펼쳐진다.

오승환, 류현진과 한술밥?...“다저스 트레이드 후보”

美 CBS스포츠, 트레이드 마감 시한 앞두고 보가 필요한 포지션·후보 꼽아

한국인 메이저리거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과 류현진(31·LA 다저스)이 한술밥을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스포츠 매체 CBS스포츠는 10일(한국시간) 다저스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과 해당 포지션의 영입 후보를 꼽았다.

다저스는 불펜과 내야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CBS스포츠는 다저스가 트레이드를 시도할 만한 불펜 투수 6명을 거명하면서 오승환을 지목했다.

CBS스포츠는 오승환의 별명인 ‘파이널 보스’를 언급하며 “오승환은 메이저리거 데뷔 첫 해인 2016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 시즌에는 별로 좋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토론토로 이적해 자신의 가치를 회복했다”며 “그의 탈삼진율은 반등했고 피홈런 수가 적어졌다. 또 평균자책점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CBS스포츠의 예상대로 오승환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되면 다저스 선발 투수로 활약 중인 류현진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고 2016년 메이저리거 무대를 밟은 오승환은 데뷔 첫 해 76경기에 등판해 79%이



닝을 던지면서 6승 3패 19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1.92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62경기에서 59%이닝을 소화하면서 20세이브(1승 6패 7홀드)를 거둬오나 평균자책점이 4.10으로 높았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오승환은 토론토에 새 등지를 틀었다. 올 시즌에는 42경기에서 42이닝을 소화하며 4승 3패 2세이브 10홀드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 중이다.

오승환의 9이닝당 탈삼진 수는 2016년 11.6개에서 지난해 8.2개로 줄었으나 올해 10.5개로 다시 높였

다. 2016년 0.6개에 불과했던 9이닝당 홈런 수는 지난해 1.5개로 늘었다가 올해 1.1개로 하락했다.

오승환과 함께 카일 바리클로프, 드루 스테켄라더, 애덤 콘리(이상 마이애미 말린스), 커비 에이츠(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데이비드 에르난데스(신시내티 레즈)가 다저스가 트레이드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내야수 영입 후보로는 에두아르도 에스코바, 브라이언 도지어(이상 미네소타 트윈스), 매니 마차도(볼티모어 오리올스), 스투어 제넷(신시내티), 휘트 메리필드(캔자스시티 로열스)가 꼽혔다.

강정호, 운명 가를 1주

손목 재검진 결과가 미래 좌우

원 손목 부상으로 빅리그 복귀에 제동이 걸린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향후 일정이 재검진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닐 현 팀인 피츠버그 단장은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강정호가 부상을 입은 손목을 1주 내에 재검진할 것”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강정호의 다음 단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팀인 단장은 “손목 상태가 좋아지면 야구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의료팀에서 부상을 더욱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재검진 결과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강정호는 다시 후반기 빅리그 복귀를 꿈꿀 수 있다.

‘올스타전 첫 출전’ 추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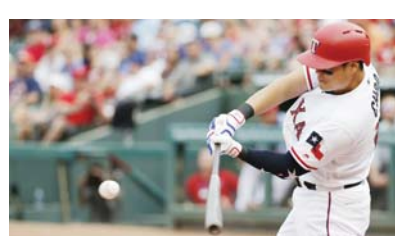
홈런 더미 참여 제안 받아

미국 메이저리거(MLB) 올스타전에 처음 참가하는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올스타전 홈런 더미 참여를 제안받았다.

미국 지역인론 매거진인뉴스는 10일(한국시간) MLB 중앙 사무국의 지인이 추신수에게 홈런 더미 참가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고 보도했다.

추신수는 “농담하는 줄 알았다”며 “하지만 그는 진지했고 나에게 몇 자리가 남아있다고 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나가서 쑥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출루의 달인’으로 성가를 높이고 있다. 9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7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한 추신수는 1993년 홀리오 프랑코가 세운 텍사스 구단 단일 시즌 최장 연속경기 출루 기록을 넘어섰다.

추신수는 “아마 참여는 안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올스타전까지) 5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참가 가능성은 열어뒀다 뉴시스

‘31언더파’ 김세영 세계랭킹 20위...1위 박인비-2위 박성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역대 최스타와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작성한 김세영(25)이 세계랭킹 20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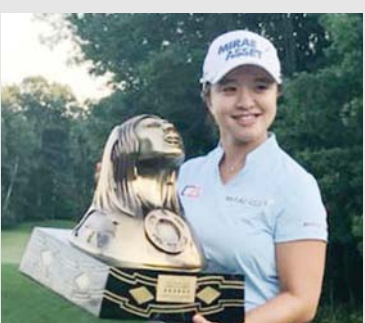
9일 미국 위스콘신주 오노이아에서 끝난 LPGA 투어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우승하면서 김세영의 세계랭킹은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다.

김세영은 이 대회에서 31언더파 267타로 우승. 2002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에서 아나카 소렌스탐이 기록한 72홀 최저타 기록(27언더파 261타)을 넘어섰다.

박인비(30)와 박성현(25)이 1, 2위를 유지했고 유소연(28) 4위, 김인경(30) 7위, 최혜진(19) 9위 등 한국 선수 5명이 10위 안에 들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아시아-황공 오픈 챔피언 김지현(27)은 68위에서 56위로 상승



했다.